

朝鮮時代の人間發達段階 및 그 教育 內容

Stages of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류 점 숙 * 1

Rew, Jeom Sook

ABSTRACT

This documentary study explored the stages of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with the use of "Non Eu, Ye Gi, So Hak, Tae Gyo Sin Gi, and Dong Yi Bo Gam". The findings were compared with Western writings of a comparable period.

It was found that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was largely concerned with mental attitude and conduct in ordinary life (education for manners and living). Education claimed to stand for unity of knowledge and behavior. It was founded on a Confucian view of education with a saint as the ideal model to be emulated. In the early years, home influence was emphasized. This was later replaced by institutional education. Additional education frequently extended to ten years and even forty or more years for the development of leader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was concluded that (1) the Western stages of human development exemplified by the Puritans and by Rousseau were concerned only with progressive changes from the postnatal stage to adolescence but the stages of the Choson Dynasty applied to the entire life span, from prenatal life through old age; (2) the developmental stages of males and females were defined differently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educational contents and sex-role distinctions; (3) life span educational objectives were Confucian and the preparatory stages were long coming to fruition in late senescence; and (4) although education was centered on manners and based on Confucianism, much of human development in the Choson Dynasty corresponds to that of modern times.

* 1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I. 序 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그 나름대로의 준거가 되는 삶의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단계중에서도 특히 성장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면을 우리는 발달 단계라 부른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조건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 즉 척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기준을 규정하는 이념이나 가치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기준으로는 신체적 변화, 지적 변화, 도덕적 변화, 사회제도 등이 있고 또는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성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사회는 유교적 사회이므로 그 기준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本稿는 유교적 입장에서 본 조선시대의 인간 발달 단계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용하려는 典籍은 유교와 함께 麗末에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禮記」 「小學」 「論語」와 우리나라의 著述인 「胎教新記」 및 「東醫寶鑑」 등이다.

이 방면에 대한 先行 研究를 거의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몇권의 책에서 얻은 조그만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基本文獻 解題

다음에는 이러한 서적들에 대한 설명과 선택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1. 禮 記

「禮記」란 中國史에서 儒家的 이상 국가로 알려져 있는 周나라(B.C. 1100~B.C. 221)에서부터 漢나라(B.C. 206~A.D. 220)에 이르기까지의 禮를 기록한 책이다. 儒家의 五經에 속하는 이 책은 孔子가 처음으로 편집했다고 하나 오늘날 그것은 전해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것은 漢武帝때 河間의 獻王이 古書 131편을 편술하여 大戴禮 214편으로 만든 것을 戴德이 85편으로 줄이고, 宣帝때 戴聖이 이것을 다시 49편으로 줄여서 만든 小戴禮이다. 이 가운데에서 後代人들에 의해 「大學」편과 「中庸」편이 따로 떨어져 나와 「論語」「孟子」와 함께 四書가 되었다.

「禮記」에는 사소한 예절이라는 曲禮에서부터 冠婚喪祭등의 가정 생활, 그리고 교육 및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上流階級の 필독서이었다. 「禮記」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 왔는지 정확한 史料는 없으나 麗末에 朱子學이 安珦, 白頤正등 유학자에 의해 수입된 것과 같이 「禮記」도 거의 同時에 流入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모든 규범의 준거를 이루었다.

따라서 발달 단계와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살펴 보려는 본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료이다.

2. 小 學

「小學」은 아동을 교육시키는 大學의 下位學校, 즉 小學校라는 뜻과 兒童의 교육서인 소학교 교과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本稿에

서 말하는 「小學」은 그 중 후자인 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南宋孝宗18년(1189)에 朱子가 門人 劉清之에게 명하여, 그가 만든 원고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정·가감하고 「小學書題」「小學題辭」를 붙여 만든 것이다.

宋의 건국으로 종전의 유학이 새로운 경지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에서는 문교정책에 주력하여 京鄕名地에 小學官을 세웠으므로 「小學」은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필요하였던 교재이었다. 灑掃·應對·進退의 범절과 事親·敬長·親友의 예절 그리고 古人的 先行 및 嘉言이 주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朝鮮의 건국과 함께 국가의 문교 장려 정책과 결부되어 숭상되었다. 예를들면 太宗朝에 이미 「小學」을 讀破한 다음에야 國學에 입학하고 과거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法制化하였고, 世宗朝에도 「小學」은 學습과 동일시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수차례 보급되었다. 또 成宗과 中宗은 童蒙教育에만 이를 국한하지 않고 유교적인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였다. 따라서 이는 관료 후보자인 士大夫 계급뿐 만 아니라 일반 서민·부녀자에 이르기 까지 읽히었으며 특히 金宗直 金宏弼에 이르는 嶺兩學派의 「小學」 숭상은 대단하였다. (李 樹健 1968 : 256 ~257)

「小學」은 창의적인 저술이 아니고 경전 등을 인용한 編纂이기 때문에 「禮記」가 많은 부분에 인용되었다. 따라서 발달 단계나 그에 따른 교육내용도 兩書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小學」은 그 序頭를 태교로부터 시작한 점이 특징이며, 아동 교육 방법이 매우 상세히 기록된 점이 本稿에서 사용하게 된 이유이다.

3. 論語

「論語」란 공자의 말을 모아 간추려서 일정한 순서로 편집한 것이란 뜻으로 孔子가 門人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응답한 말, 문인이 스스로 한 말, 그리고 문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孔子의 언행·용모·태도 등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儒家의 聖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朱子에 의해 四書의 하나로 推尊된 중국 최초의 語錄이기도 하다. 그 내용에는 공자의 정치·윤리·교육에 관한 이상이 나타나 있고, 구체적으로는 학문과 덕행에 관한 學而篇에서부터 역대 성인의 정치 이상을 담은 堯日篇에 이르기 까지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論語, 玄岩社 : 3~13).

「論語」는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함축성이 있고 모든 내용이 인생 경험의 깊은 英智의 結晶으로서 음미할수록 가치가 있기에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지식인의 필독서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공자 자신의 수양과정에 의한 도덕적 발달 단계를 읽을 수 있고, 또 이것은 儒子들의 이상이었으므로 本稿의 자료로 선택하였다. 위의 3권은 중국 本이지만 유교라는 동일한 문화권을 기저로 하여 한국인의 好尙을 받아 오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침투되었고, 한국인의 생활태도를 제어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 本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4. 胎敎新期 및 東醫寶鑑

서양의 아동교육이 신생아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출발된 데 비하여 동양권에서는 인간을 수정시부터 교육적 대상으로 인정하고 중시했다. 따라서 태아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형성·발달 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인 태교(유 안진, 1980 : 24)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등에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조선조에 와서는 본격화되었고 지역과 계급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태교가 발달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서적들도 보급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胎教新記」라 하겠다.

「胎教新記」의 저자는 純祖때의 유명한 학자로 「諺文志」를 쓴 柳 僖의 母夫人 師朱堂 李氏이다. 이 책은 朱子를 스승으로 받들면서, 女書는 물론 四書·毛詩·尙書 및 醫書 등을 두루 섭렵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학자가 자기의 해박한 지식과 一男三女를 생산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저술한 것이다. 원래는 「教子輯要」라는 책명으로 집필되어 있었으나, 저자가 발표하기를 꺼려하다가 進甲年에 주위의 권유로 원고를 補綴하여 준 것을 아들인 柳 僖가 章句를 정하고 이해하여 純祖 元年(1801)에 발표하였다. (權寧徹, 1972: 158) 역사상 태교에 관한 저술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개가 이를 부분적으로 다룬데 비하여 「胎教新記」는 전체가 태교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논리성이나 체계성에 있어서도 고금을 통하여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저술이 그 당시까지 질·량 면으로 가장 우수한 태교 전문서적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本稿에서 이를 기본 자료의 하나로 이용한 점은 태아기에 대한 명칭이 있고, 또 태교의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醫聖 許 浚이 선조조에서 광해군때에 이르기까지 14년 동안 연구하여 저술한 醫經 「東醫寶鑑」도 胎兒期의 發達段階를 소상히 묘사하였기에 함께 이용하였다.

Ⅲ. 文獻上으로 본 發達段階

먼저 師朱堂 李氏의 「胎教新記」를 살펴보면, 자궁속에 있는 상태를 胎로 표시하고 태교 방법상,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수중에 서부터 임신 2개월까지를 前段階라 할 수 있고, 3개월에서부터 출생까지를 後段階라 할 수 있다. 第四章 第三節에

妊娠 3월에 形象이 始化하여…… 라고 하여 음력 3개월부터 胎가 형상과 기질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므로 그때부터 구체적인 태교의 방법을 통하여 教化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도 임신 2개월까지를 胚라 하고 3개월부터를 胎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발달 상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月: 1개월(27일)에는 太極이 動해서 이슬방울과 같은 구슬 형의 胚를 이루며 그 크기는 콩알만 하다. 食하는 것이 평일보아 조금 달라진다.

2月: 太極이 靜하므로 露珠 型의 胚가 변하여 赤色이 되고 桃花의 花瓣과 같은 모양을 이룬다. 肝臟이 血을 養하므로 虛해서 惡阻가 생기고 一物을 편벽스럽게 즐기기도 한다.

3月: 코와 陰陽의 二器가 나타 나며 隱然히 전체가 갖추어 지는데 이것을 胎라 한다. 태극의 乾道는 男이 되고 坤道는 女가 된다.

4月: 水精을 받아서 血脈이 되고 形象이 갖추어 지며 六腑가 順成된다.

5月: 처음으로 火精을 받아서 陰陽의 氣를 이루고 筋骨과 四枝가 생기고 모발이 난다.

6月: 처음으로 金精을 받아서 힘줄이 생기고 口·目이 형성된다.

7月: 처음으로 木精을 받아서 뼈가 생기고 皮毛이 일고 魂이 놀고 左手를 움직인다.

8月: 처음으로 土精을 받아서 피부가 이루어지고 形骸가 점점 커지며 九竅가 생기고 魄이 높고 右手를 움직인다.

9月: 처음으로 石精을 받아서 皮毛가 이루어지고 百節이 다 갖추어 지며 그 몸을 세번 굴린다.

10月: 氣를 받은 것이 족하여서 五臟과 六腑가 일체히 통하여, 天地의 氣를 舟田에 받아들이 관절과 人神을 다 구비하고 나가기를 기다린다.

「東醫寶鑑」에서는 태아기를 270일로 보고 세부적인 변화는 9일을 기준으로 하며 9일을 3번 합한 27일을 1개월로 잡고 있다. 또 이를 음양설과 연관하여 앞단계는 太極의 영향을 받고 뒷단계는 그것이 분화한 水·火·金·木·土·石의 영향을 각각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許 浚, 東醫寶鑑: 958) 이것을 오늘날의 태아 발달 단계(주 정일, 1987: 51, Hellen Bee, 1981: 49)과 비교하면 다소 늦게 잡은 감은 있으나 남여의 구별이 이루어 지는 시기라든가 신체 외형이 생성·확대되는 시기는 비슷하며, 魂·魄등 정신적인 발달 단계의 언급한 점은 특이하다. 또 「東醫寶鑑」에서는 태아기뿐 아니라 출생후에도 아동의 발달 단계를 문헌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예를 들면 「胎春」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처음 난 애기를 嬰兒, 3세를 小兒, 10세를 童子라 한다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 醫術上 脈을 짚는 방법에 따라 아동의 발달 단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처음 나서 半歲에 이르기까지는 이마의 맥을 보고, 1세로 부터 5·6세까지는 嬰孩라

고 하며 三關脈을 살피고……, 7세로 부터 8세까지를 齠라 하고, 9세로 부터 10세까지를 齔라 하는데 비로소 한 손가락으로써 三部脈을 눌러서……”라고 하였으며, “16세이전은 陰氣 성장의 부록하고 腸胃가 아직 약하니 修養의 法을 삼가지 않아서는 안된다”(허 준: 1006)고 해서 아동기를 16세까지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孔子는 「論語」에서 자신의 생애를 근거로 하여 인간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我 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고 하였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언급하면

志于學: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어 매진한다는 것이다. 「朱子集註」나 「白虎通」辟雍篇에 의하면 옛날에는 15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물론 15세 전에도 분자를 익히고 생활을 위한 교양으로 공부를 하지만 冠禮를 치르고 成童이 되어서 志于學 한다는 것은 학문을 곧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立: 여기에서 立이란 기초가 확립되다 또는 학문을 완성하고 자립하다는 뜻이다. 옛날 학자들은 3년에 一經을 터득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15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五經(詩經, 書經,

* 1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論語: 爲政)

周易, 禮記, 春秋)을 통달하는 데는 15년이 걸리므로(윤 진, 1985 : 33) 30세로 정한 것 같다. 그런데 당시의 학문은 道나 禮를 의미하였으므로 높은 학문 즉 덕의 기초를 확립하여 하나의 인간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禮記」에 의하면, 30세가 되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에 아내를 맞이하고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不惑 : 모든 사리에 의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식을 얻으면 自信을 얻어서 남의 말에 유혹되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즉 자기 자신이 확고하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Thomas, 1988 : 117)*2

知天命 : 天命에는 두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인생살이의 부귀와 빈천이 모두 하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자연 법칙 즉 天道가 流行하여 사물을 헤아리는 것으로 사물의 당연한 연고이다. 이러한 면을 알게 되면 자연히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使命을 알고 분수에 만족하는 상태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자가 天命思想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의지처럼 天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耳順 : 耳順을 鄭玄은 “그 말을 듣고 숨은 뜻을 안다”(聞其言而知其從旨)라 했으며, 朱子는 “소리가 들어 가면 마음이 통해져 어기고 거스르는 바가 없고, 지혜가 최고에 달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해득한다”(聲入心通無所違逆知之之

至不思而得也.)라고 註釋해서 이때가 되면 모든 일을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되고 또 괴로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不踰矩 : 不踰矩는 從心所欲不踰矩로 이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법도나 관습에 맞추려고 일부러 힘쓰지 않고 자신의 사념이나 욕구대로 행동해도 저절로 법도나 관습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至高의 상태이다. 따라서 不踰矩는 앞의 단계를 잘 밟아 발전해 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인격형성의 최후의 목표이다.

이상에서 孔子의 인간 발달 단계는 자신의 수양과정을 증거로 하여 설정한 도덕적 발달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孔子를 鼻祖로 하는 儒人들에게도 역시 이상적인 모델인 동시에 공감하는 단계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禮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발달 단계를 볼 수 있다.

悼 : 7세로 애처롭게 여긴다는 뜻이다. 죄가 있어도 형벌을 면한다.

幼學 : 10세로 幼小의 뜻이다.

弱冠 : 남 20세 여 15세로 몸이 아직 強壯하지 못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머리에 冠을 쓰고 字(본명외에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를 지어 부른다.

壯 : 30세로 몸이 壯建해 지기 때문에 붙인 이

* 2 At 15 I though only of study. At 30 I was playing my role. At 40 I was sure of myself. At 50 I was conscious of my position in the universe.

At 60 I was no longer argumentative. And now at 70 I can follow my heart's desire without violating custom. Confucius.

름이다. 이 때 아내를 맞이 한다.

強 : 40세로 智慮와 氣力이 매우 強盛하다는 뜻이며, 이 때 벼슬에 나아 간다.

艾 : 50세로 기력이 쇠잔해 저서 머리털과 얼굴 빛이 창백해 진다는 뜻이다. 이때에는 官職·政務에 종사한다.

耆 : 60세로 주와 통하며 老境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때에는 일을 지시하여 사람을 부린

다.

老 : 70세로 쇠약이 극단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벼슬에서 은퇴하며, 家督을 자식에게 물려 준다.

耄 : 80, 90세로 神氣가 衰耗함을 뜻한다. 이때에는 정신이 혼미해 지고 잇기를 잘 하므로 죄가 있어도 형벌을 면한다.

期頤 : 100세로 壽의 극진함을 뜻한다.*3

表 1. 傳統社會의 人間發達段階에 대한 一例

단 계 명	인 령	교 육 방 법	교 육 내 용	도 덕 성
胎 兒 期	결혼~임신2개월 3개월~출생	간접교육(胎敎) 〃	부부의 심신보양 및 수양 심신을 통한 태모의 수양	無 律 期
乳 兒 期**	출생~3세	간접 교육 (model 제시)	제반덕성 및 정직하고 바른행동	〃
幼 兒 期**	3세~7세	직접 교육 (수동적)	오른손 사용법, 응답법 숫자와 방위 및 성교육	〃
童 蒙 前 期	7세~10세	〃	검양의 예법 및 날자세는 법	〃
童 蒙 後 期	10~15세	직접 교육 (능동적)	글자, 숫자 및 어린이 예법	自 律 期
成 童 期	15세~20세	〃	음악, 시, 춤, 활쏘기, 말타기 및 성인예법	〃
準 出 仕 期	20세~50세	〃	유교경전 및 자기수양	〃
	30세~40세	〃	〃	〃
出 仕 期	40세~50세	타인 교육	하급관리, 학문 및 스승	〃
	50세~70세	〃	고급관리, 학문 및 스승	〃
致 任 期	70세 이상	〃	관직 및 家督에서 은퇴	〃

* 3 人生十年曰幼學 二十曰弱冠 三十曰壯有室 四十曰強而仕 五十曰艾服官政 六十曰耆指使 七十曰老而傳 八十九曰耄 七年曰悼 悼與耄 雖有罪 不加刑焉 百年曰期頤(禮記:曲禮)

* 4 단계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당시의 乳·幼兒期에 해당하는 시기는 문헌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대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상은 신체적 변화와 역할을 중심으로한 전생애적 발달 단계로 거의 10년을 단위로 정한 것이 특징이며, 오늘날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결혼을 신체적 면으로만 보면 30세로 정한 것이 다소 늦은 편이나 이를 신체와 정신(학문과 인격)이 함께 성숙한 후에 함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禮記」에서는 본격적인 신체적 쇠퇴기를 50부터로 보았다. 그래서 官職·政務에 종사하는것 외에는 일상 생활에서 노인으로 취급하였으니 예를 들면 50이 되면 居喪도 너무 수척하지 않도록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술과 고기를 대접하도록 하였다. (禮記：曲禮)

그러나 女子의 발달 단계는 許嫁(비녀를 꽂고 字를 짓는다)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즉 女子가 出家하는 것은 15세 이상으로 定年이 없기 때문에 남자처럼 연령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발달 단계외에도 金 泰午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옛적부터 관습에 의하여 쓰여 지고 있는 연령계급으로 黃(3세 이하), 小(4~15세), 中(16~24세), 丁(25~54세), 老(55~60세 이상)라는 단계(金 泰午, 1956 : 73)도 있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문헌을 종합하여 전통사회에서 행하여 졌을 발달 단계를 작성해 보면 表 1과 같다.

IV. 發達段階에 따른 教育內容

조선시대에서 연령에 따른 교육 방법이나 생활 형태를 이상의 발달 단계와 연관시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의 인간 발달 단계는 대략 아홉 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胎의 단계로서 이것을 다시 두개의 하위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단계는 임신에 대한 준비 및 확인기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임신에 대한 준비가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서 배우자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혼인은 좋은 자손을 위하여 通婚圈내에서 同姓同本·越三性·百里밖 不婚의 원칙(柳 岸津, 1986 : 72)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 가능하면 큰 인물이 난 집안과 혼인을 정하되 六禮(納采, 問名, 納吉……)를 갖추어 엄숙히 하였다. 이렇게 맺어진 부부는 총명하고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두번째 하위단계인 태교를 시작한다.

물론 태교도 수정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남편은 精을 충실하게 하고 아내는 月經을 고르게 해서 天忌, 地忌, 人忌를 피하는 交合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天忌라 함은 합방할 때의 日辰과 日氣에서 좋지 못한 때를 피하는 것으로서 이는 敬天意識이 강한 동양인의 사고가 잘 나타나고, 地忌란 합방 장소를 적당히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피하려는 것이며, 人忌란 당사자 자신의 심신의 건강을 중요시한 점이다. 이렇게 하여 孕胎가 되면 집안에 알려져 가족의 협조를 얻고, 孕婦는 외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극을 피하면서 제3개월부터는 본격적인 태교를 실시하게 된다. 부모의 언행과 마음가짐을 법도에 맞게 행해서 태아에게 저절로 좋은 감화를 주려고 하는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은 「胎教新記」나 「小學」 및 「閨合叢書」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태교서 가운데서 본 연구자는 「胎教新記」가 가

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내용중의 한 부분을 보면,

디아비 姓성 자식은 나
간이아 을 바다 씨 디아비게 도
라보낼새 열달을 敢감히 그몸을 임의로 못하
여 禮례 아니어든 보디 말며 禮례 아니어든
듯디 말며 禮례 아니어든 니라디 말며 禮례
아니어든 움직이지 말며 禮례 아니어든 생각
디 말아 하여곰 마암과 지각과 백가지 몸으로
다 順순하고 바라게 하여 씨 그 자식을 기
라난 耆자난 어미의 도리니 女녀傳
전 세한 禮니 向향의 道
정인 女녀 傳전 이하다 에 갈아대 婦부人인 이 자식배
매 잠자기를 기우로 아니하며 안끼랄 한편으
로 아니하며 서기랄 최드대디 아니하며 사괴
로운 맛알 먹디 아니며 버힌 것이 바라디 아
니키든 먹디 아니하며 듯치 바라디 아니커든
안띠 아니하며 눈에 사괴로운 빗흘 보디 아니
하며 귀에 음난한 소래랄 듯디 아니며 밤이면
소경으로 하여곰 詩시 공자 賢인
의 노래야 를 외오며 바
란 일을 니라니 이런타하면 자식을 나흐매 얼
골이 端端正정하고 재죄 남에게 디나다 하니
라. (胎教新記, 第四章 第四節)

와 같고 「小學」立教篇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내용은 「論語」鄉黨篇등에서 볼 수 있
는 孔子의 일상 생활과 비슷하므로 우리 전통
태교란 자녀로 하여곰 태아가 부터 성인을 모델
로 하여 닮아 가도록 부모가 노력하는 수양법입
을 알 수 있다. 教育書뿐만 아니라 胎教는 醫書
에서도 강조하였는 바 예를 들면 「東醫寶鑑」의
婦人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交음을 법에 따라서 하면 福德과 智慧가 있고

胎教를 배풀어서 태중에서 부터 性行이 調順
하면 家道가 날로 높아지는 것이요, 만약 법
을 違背하면 福이 얽고 愚痴하며 태중에서 부
터 性행이 凶險하고 所作이 나빠져서 家道가
날로 否塞해지는 법이니 복록의 옹하는 것이
그림자와 소리나는 것 같은 것이다. 어찌 警
戒하지 않으랴

라고 하였다.

다음, 애기가 태어 나면 그 명칭을 일반적으
로 兒孩라 하였다. 글자상으로 볼 때 兒孩의 兒
字는 절구(兒)와 사람(人)을 합한 상형 문자로
“머리 모양이 절구같은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발달 단계상 신체 비율에서 머리가 큰 신생아
내지 乳兒의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孩”字는
웃을 “咳”에서 입“口”를 빼고 아들 “子”를 대신
넣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兒孩는 체구에 비
해 머리가 크고 방긋 방긋 웃는 사람을 뜻한 것
인데, 이때 부터 이미 男女의 구별이 있어 女兒
에게는 “嬰”이란 표현을 썼다고 한다(釋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날에는 출생전에도
이미 태교를 했지만 제 2단계인 출생 직후 부
터의 교육도 엄격하고 철저하였다. 그래서 「禮
記」內則편에 보면,

孺子가 태어 났을 때는 寬裕하고
慈惠롭고 溫良하며 恭敬하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말이 적은 여성을
가려서 아들의 스승으로 삼는다.*5

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도 乳母를 선택할 때
는

반듯이 정신이 爽慧하고 性情이 온화하며 肌

* 5 異爲孺子室於宮中 擇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 慈惠溫良 敬慎而 言者 使爲子師 其次爲慈母 其次
爲保母 皆居子室 他人無事不往(禮記, 內則)

肉이 充肥하여 아무런 질병이 없고, 寒溫의 適宜를 잘 알고 給乳의 절제를 마땅하게 할 줄 아는 乳母를 구하고……

유모의 稟質의 후박과 性情의 緩急과 骨相의 堅脆와 德行의 선악을 아이가 반듯이 닳으니 더욱 연관이 많은 것이다. (東醫寶鑑：小兒)

라고 하여 유모선택에서 신체조건 못지않게 정신적인 조건도 중시 하였다. 뿐만아니라 同書에는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고 정직하며 설때는 반듯이 바른 방향으로 하며 귀를 귀우려 듣지 않는 것을 보여야 한다.

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Erikson 이론에 비추어 보면 乳兒期부터 관유·온량·공경·근신 등의 좋은 덕성에 접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신뢰감이 발달되어 긍정적인 인성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儒人이 갖추어야 할 「仁」의 품성을 습득하고 또 儒人의 필수적인 덕목인 「義」를 익히게 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었으니라 생각된다.

이처럼 태아기와 乳兒期는 문자나 언어로서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델 제시 방법으로써 간접 교육내지 무의식 교육을 하였다. 이 단계를 3세로 정한 것은 관습적인 연령 구분에서 3세까지를 黃(金 泰午, 1956 : 73)이라 표현했고, 「回春」이란 문헌에 3세를 小兒로 적고 있으며, 「論語」에서 父母喪을 3년으로 정한 것*도 乳兒期에 대한 報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표현에도 삼년을 젓 먹이심에 어미 기름과 피를 먹나니

이끌며 붙들여 간수하며 품으심에 날로 자라기를 바라시어 금과 구슬을 앗기듯 하시며… (警民篇)

라 하였는 바와 같이 애기를 3년동안 젓 먹이고, 걸음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붙들고, 자신의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품고 간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유아기의 특징인 젓을 먹고, 걸음을 걸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애기라는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당시에 행해 졌을 자연 출산에 의해서도 동생을 보는 확률이 3·4세가 가장 많을 것 같아 이때까지를 乳兒期로 구분해 보았다.

그러나 제3단계인 幼兒期부터는 아이를 상대로 직접 교육을 한다. 즉

자식이 능히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거든 오른 손으로 먹도록 가르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하고 (唯), 계집아이는 느긋히 대답하게 하며(兪), 사내아이 띠는 가죽띠로 매게 하고, 계집아이 띠는 실로 매게 할 것이다.*7

라고 하여 교육의 시초부터 오른 손을 사용하는 문화권에 적응하도록 사회화 시키고, 자신의 성에 어울릴 수 있는 언행, 차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을 교육이라기 보다는 올바른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교육 즉 禮教育이라 할 수 있고 禮의 내용은 시초부터 남성과 여성간에 뚜렷이 구분됨이 나타나고 있다. 또 자식이 6세가 되면

여섯살이 되면 하나·둘·셋 등의 셈 하는 것

* 6 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論語：陽貨)

* 7 子能食食 教以右手 能言男唯女兪 男繫革女繫絲(禮記：內則)

과, 동서남북 등의 방위를 가르칠 것이며**로 되어 있어 이때부터 지식과 관계되는 생활의 기본 기능을 조금씩 습득시키면서 주변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도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교육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먹이는데도 일정한 때가 없다.*9

라든지

어버이를 봉양한 그 달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음식은 어린이가 그 나머지를 먹는다.

와 같이 幼弱하기 때문에 어른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보호를 하였다. 그리고 “悼”라는 연령 구분으로 죄가 있어도 벌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교육과 보호가 함께 부여되었으므로 오늘날의 保育期 또는 幼兒期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무의식적인 교육을 한 후에 의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에서도 6세경까지는 무의식적인 교육이었고 7세부터는 의식적인 교육기로 이행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 4단계인 童蒙前期가 되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다. 즉 7세가 되면

일곱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여 앉지

않으며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10

고 해서 유교사회의 윤리규범인 소위 內外法이란 규제가 아이들에게 부과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도 통제를 받기 시작하므로 이때를 童蒙期(아동기)의 시작으로 보았다. 계속해서

여덟 살이 되면 남녀 모두 문호를 출입하고 자리에 앉고 음식을 먹음에 있어 반드시 어른보다 뒤에 하게 하여 비로서 謙讓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11

라고 해서 孝弟내지 長幼의 규범을 훈련시키고 9세에는

아홉살이 되면 남녀 모두에게 朔日과 十五日 및 六甲을 가르쳐 준다.*12

로 되어 있어 전통사회에서의 상식인 날짜 세는 법과 시간 관념을 주입시켜 아동으로 하여금 어리지만 실제 생활에 좀 더 깊이 참여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제 5단계인 童蒙後期 즉 10세가 되면 內外法이 엄격할 뿐 아니라 교육방법도 성별에 따라 男女 두 종류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전까지는 소극적·수동적으로 가르침을 받던 것(Instruction)을 10세부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우는(Learning) 변화가 있는 한편, 연령 분류상에서도 “童”이나 “幼學”이란 표현을 10세부터 사용했다는 근거에서 이때부터를 童蒙後기로 설정해 보았다. 그래서

* 8 六年教之數與方名(禮記:內則)

* 9 孺子蚤寢晏起 唯所欲 食無時(禮記:內則)

* 10 七年男女不同席不共食(禮記:內則)

* 11 八年出入門戶及即席飲食必後長者 始教之讓(禮記:內則)

* 12 九年教之數日(禮記:內則)

男子가 열살이 되면 밖에서 거처하고 잠자기 하며 교사를 택해서 글씨쓰고 계산하는 것을 배운다. 옷은 비단으로 저고리와 바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행하는 예절은 모두 처음에 가르친대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예의를 배우되 간이하고 신실한 일을 청하여 익히게 할 것이다. 열 한살 열 두살의 경우도 모두 같다.*13

로 되어 있다. 즉 10세가 되면 남녀가 좌석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음은 물론 內(안채)와 外(사랑채)로 생활 공간을 뚜렷이 구분하고 일상생활도 서로 구별하였다. 예를들면 길을 걷는데 있어서도 남자는 우측으로 비켜 가고 여자는 좌측으로 비켜 가며, 절을 할 때도 男子는 왼 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 손을 위로 하며, 남자는 안의 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깥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喪中이 아니면 남녀가 손수 그릇을 주고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부득이 주고 받을지라도 직접 주고 받지 않고 匪에 넣어 수수하며, 匪가 없을 때에는 남녀가 꿇어 앉아 주는 자가 그것을 땅바닥에 놓으면 받는 자는 땅바닥에서 집게 하였으며, 욕실은 물론 침실도 함께 쓰지 않고, 옷걸이나 옷을 보관하는 상자도 함께 쓰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兒童期부터 이렇게 철저한 내외법을 훈련함은 남녀유별이 심한 사회에서 타인의 혐의를 피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성 의식과 성 역할을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또 童蒙으로 하여금 書와 數를 배워 학문에 정진하고 예산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

련하였다. 여기서 書라 함은 글씨 쓰기 또는 六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書經」 즉 儒敎의 立場에서 聖君, 聖賢의 業績을 기록해 놓은 史書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책을 가르침은 幼學들로 하여금 조상의 위대한 업적을 주입시켜, 조상들의 행위를 아동자신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게 만들고 또한 조상들을 흠모하게 함으로써 일찍부터 儒家的 인물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옷도 비단이나 가죽은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인 즉 어린이는 몸이 따뜻하므로 비단(명주)이나 가죽 옷이 필요없고, 사치함도 방지한다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을 입히면 원기를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솜옷도 입히지 않았으며, 동작이 익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신머리에 장식도 하지 않았다.*14 또 「東醫寶鑑」에서도

小兒는 肌膚가 實하지 못하니 만약 두터운 옷에 과히 따스하게 하면 피부를 상하고 血脈을 덜어서 瘡瘍을 發하고 땀이 나서 腠理가 열리고 風邪가 들어가기 쉬우니……

라고 하여 지나친 보온을 경계하기도 하였으며 날씨가 추우면 부모가 늘 입을 헌옷으로 의복을 지어 아이에게 입힐 것이며 新綿이나 絹으로써 만들지 말 것이다. 헌 옷을 쓰는 法은 만약 너무 溫緩하면 筋骨이 연약하여 질병을 얻기 쉽다.

고 하였고 또

70~80세 노인의 헌옷으로 衣衿을 지어 입히면 眞氣가 서로 滋養이 되어서 아이로 하여금

*13 十年出就外傳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襦袴禮師初 朝夕學幼儀 請疑簡諒(禮記：內則)

*14 童子不裘不帛 不履絢 無紕服 聽事不麻 無事則立主人之北南面 見先生從人而入(禮記：玉藻)

長壽하게 하는 것이며, 부귀한 집에서 新綿과 絹으로 아이 옷을 만드는 것은 疾病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福을 더는 것이다.

라고 하여 옷에서도 氣의 調和, 실용, 건강 및 福을 아끼려는 노력이 보이며,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도 노년층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행해야 할 幼子의 禮도 훈련시켰는 바, 첫 닭이 울면 일어나 손 씻고, 양치질하며 머리 빗고 옷을 단정히 한뒤, 부모님께 문안드리며, 무엇을 잡수시겠느냐고 물은 뒤 연장자를 도와 食床을 올리도록 배우고 항상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며 잠자리를 편안케 해드리도록 가르쳤다. (禮記：內則) 또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직접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氣色을 잔잔히 하고, 얼굴을 부드럽게 해서 謙하도록 배운다로 되어 있으니 당시의 禮教育에서 효과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0세부터는 학문과 禮의 양면이 공히 본 궤도에 오르는 시기로서 도덕적으로 보아도 타율에서 자율로 옮겨 가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 13세의 교육을 살펴보면

열 세살이 되거던 음악을 배우고 詩歌를 외우며 勺으로 춤을 추게 하고 열 다섯살 이상이 되거던 象으로 춤추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15

고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儒家에서도 초기에는 노래와 춤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禮

가 외모를 닦는 것과 같이 노래와 춤이 마음을 닦아 性情을 부드럽게 하고, 情操와 도덕심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있는 사람의 음악은 盡美할 뿐만 아니라 盡善하다고 생각했고, 공자도 詔란 음악을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다고 했다.

춤을 출 때에는 북을 쳐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도 불렀는데 그것에도 순서가 있어서 먼저 勺舞(勺을 가지고 추는 文舞)를 추게 하고 다음에 象舞(象으로 추는 武舞)를 배우게 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 오면서 짐잡은 선비가 어떻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느냐고 꺼리는 바람에 차츰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詩는 당시 士大夫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詩經詩 三百篇을 말하는 것으로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16}란 孔子의 표현처럼 상류계급에서는 사교적인 측면으로 또는 외교적인 측면으로 詩가 크게 인용되었다. 따라서 詩三百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적당히 인용할 줄 모르면 貫族社會에서 인간행세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童蒙으로 표현했는데 「釋名」에 의하면 蒙이란 “家나 室을 갖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 즉 남자가 혼인하여 家를 이루거나 여자가 出家하여 室을 얻기 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했고 또 蒙이란 돼지가 분만될 때 막을 쓰고 나오는 것에 비유하여 아직 “어리다” “어리석다” “어둡다”란 뜻(丁 淳睦, 1983 : 3)으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선인들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어두운 것을 처

*15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 學射御(禮記：內則)

*16 不學詩 無以言(論語：季氏)

없애 주는 것을 교육이라 생각했기에 擊蒙이란 용어를 教育과 同義語로 常用했다.

成童期는 이상과 같이 擊蒙이 어느정도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성인으로는 접어 들지 못한 단계 즉 아동적인 요소와 성인적인 요소를 공유하면서 成人期로 移行하는 잠정적인 단계 또는 과도기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례*17의 연령이 일정하지 않고 결혼연령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童蒙에서 바로 成人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상당기간을 猶豫期로 보낼 수도 있어 장단의 차가 크다.

따라서 제 6단계인 成童期 즉 15세 이상이 되면 활쏘기와 말타기도 배우는데 이는 귀족사회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교양인 동시에 생활이었으므로 아동기를 벗어 나면 춤과 더불어 익히게 하였다. 특히 말타기를 배우는 것은 공간적인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서양에서 운전면허증의 획득이 성인됨의 한 표시인 것과 흡사하여 흥미롭다.

本稿에서 15세를 成童期로 정한 것은 「小學」이나 「禮記」에서 15세를 成童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에서도 이상과 같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상으로도 「大戴禮」 「白虎通」 등에 의하면 8세에 小學 學宮에 入學하고 15세가 되면 大學에 들어가 修學한 점, 그리고 당시에 成人으로 들어가는 의식인 冠禮

의 일반적인 연령이 15세이었던 점 등에 근거하였다.

다음은 제 7단계인 準出仕期로 이를 다시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보았다. 먼저 전기인 20대의 교육을 살펴 보면,

남자로서 스무 살에 이르면 곧 관을 쓰고 성인이 된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서 예를 배우며 또한 갓옷과 비단옷을 입을 수 있다. 大夏의 舞樂을 배우며 효제의 길을 돈독하게 행하고 스스로 널리 배워 知德을 높이 하고자 애써야 하지만, 아직 남을 가르치지 않는으며 겸양하는 마음을 항상 지녀 뽐내지 말아야 한다.*18

로 되어 있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사정에 따라 관례를 앞당기기도 하지만 원칙은 스무살에 하고, 그 후에 비로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 관례를 치르면 완전한 성인이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성인의 예를 배운다. 물론 그 전에도 예를 배웠지만 그것은 幼子の 예이고, 관례를 치른 뒤에 배우는 예는 성인의 五禮이다. 五禮란 吉禮(祭禮) 凶禮(喪禮) 賓禮(賓客) 軍禮(軍旅) 嘉禮(冠禮)이다. 따라서 이때 부터는 五禮를 주관할 수 있으며, 童蒙때 입지 않았던 비단옷(명주옷)과 갓옷(가족옷)도 입을 수 있다. 또 성인이 되었으므로 운무가 겸비한 大夏樂(夏禹氏가 만든 음악)의 춤을 배우며,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격하는 예를 돈후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때는

*17 冠禮는 아동이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징표로 성인의 모자인 冠巾(갓)을 쓰는 의식이다. 관례를 치르고 나면 성인으로 취급되어 결혼도 할 수 있고, 성인이 갖는 권리와 의무도 부여된다. 「四禮便覽」에 의하면 양반의 자제는 15~20세 사이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아 성인이 되었다고 판단된 시기를 정하여 관례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 더 어린 나이에 관례를 치르기도 했다.(柳岸津, 1986 : 47~52)

*18 二十而冠 始學禮 可以衣裘帛 舞大夏 惇行孝弟 博學不教 內而不出(禮記 : 內則)

아직도 학문이 정통하지 못하고 덕이 미숙하므로 남의 자제를 잘못 인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기는 이르다고 보고, 才德을 속으로 쌓되 겉으로는 들어 내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일종의 축적기로 생각된다.

다음은 출사준비 단계의 후기인 30세 이후의 생활을 살펴 보자.

남자가 서른 살이 되면 아내를 맞이하고 비로소 남자로서의 일을 다스린다. 널리 배우지만 정해진 스승이 없고 朋友를 좇아 그 뜻하는 바를 보고 그것을 자기 수양의 밑거름으로 삼는다.*19

고 하였다.

우선 本稿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달 단계는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인간 발달단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결혼도 신체적 성숙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과 도, 즉 知行合一이 이루어지고 또 당시의 사회에 필요한 제반 교양을 두루 갖추어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후에 아내를 맞이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래서 신체적 변화로 보면 30세의 결혼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가정적인 부담이 있기 전에 이상과 같은 儒人(지도자)으로서의 필요한 자격을 먼저 갖추려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긍이 간다. 또 30세가 되면 成人으로서 政役に 이바지하며, 농토를 분배 받아 자기 주관하에 처리하는등 가정생활에도 충실한 시기이다.

다음은 제 8단계인 出仕期에 접어 든다.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당시의 교육의 근본 목적은

儒家的 입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과 그것에 의한 관리 채용, 그리고 民風純化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즉 30년동안의 봉사 기간을 위하여 앞 단계의 40년간을 교육받고 수양한 것이다. 이 기간도 전후단계로 나눌 수 있어 40~50세까지를 前期, 50~70세까지를 後期로 본다. 40세에는

남자는 마흔 살이 되면 비로소 出仕한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計策을 案出하고 생각하는 바를 발표하여 임금에게 올리는데, 임금이 들어 줄 때는 곧 그 일에 복종하여 그 임금에 따르고 임금이 들어 주지 않을 때는 벼슬을 내어 놓고 조정을 떠난다.

신살이 되면 명을 받아 大夫가 되어 官府의 정사를 담당한다. 일흔이 되면 관직을 내어 놓고 물러나 노후를 정양한다.*20

로 되어 있다.

즉 이때에는 앞단계에서 修學한 學文과 德을 실제로 펴 보는 때이다. 그것도 40세의 처음 배울 때와는 士가 되어서 남을 섬기며 국가의 작은 일을 처리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後期인 50세가 되어야 비로소 大夫가 되어 남의 어른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담임한다. 그리고 60대에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통하여 더 큰 책무를 이행하며, 사람을 가려서 쓰는 일까지 맡지만 70이 되면 아무리 임금의 총애가 깊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은퇴하는 것이 또한 儒人의 禮이다.

그러나 제 8단계인 出仕期를 모두 官人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修學期間에 연마한 높은 學文과

*19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友視志(禮記：內則)

*20 四十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 五十命爲大夫 服官政 七十致事(禮記：內則)

德을 가지고도 벼슬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學文과 스승의 길로 정진함으로써 學統을 세우고 風俗을 순화한 경우도 훌륭한 봉사이었고 儒人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 9단계인 致仕期는 70세 이후로 官에서 은퇴해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 오는 老年期이다. 鄉里로 물러난 뒤 이들의 대부분은 家督을 자식에게 물려 주고, 學文과 後學 양성에 노력을 쏟으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出仕할 수 있는 人物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스승들은 官에서 물러난 老人이나 老學者들이 많았으므로 어린이는 이들 老 스승을 통하여 學文과 歷史를 배우고 先人들의 賢智를 들었다. 또 이들은 民風이 음란한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교화했으며 마을이나 나라의 元老로 언제나 마을 일이나 나라 일에 참여하여 조언하는 권리를 가졌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長幼의 禮도 관계되지만 많은 경우 노인은 곧 스승이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륜이나 학식외에도 노인은 연령 그 자체만으로도 대접을 받았다. 예를 들면 70이 되면 방안에 선반을 마련하여 놓고 항상 美食物을 두고 먹으며, 부모가 남겨 주신 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喪을 당해도 술과 고기를 마시고 먹으며 室內에 있지 倚虛에 거하지 않았다. 또 죄를 지어도 형을 받지 않아서 幼兒와 노인이 함께 보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女性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자는 열살이 되면 항상 閨門안에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아니하며, 여스승은 이들에게 언어

를 상냥하게 하고 용모를 유순하게 하며, 어른의 말에 복종할 것을 가르친다. 또 방직·양잠·제사·베짜기 등 여자의 일을 배워 이로써 의복을 공급하고, 제사의 예를 보도록 하여 주상·변두·저해를 사당에 올려 공개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이로써 예를 행할 때 어른을 도와 재찬을 놓는 일을 돕게 한다.*²¹

고 하였다. 즉 여자는 10세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규문을 나서지 않고, 당시의 문화가 요구하는 바의 여성적 태도와 품성을 닦으며, 가사 기술을 익히는 등 가정생활이 전부이었는데 비해, 남자는 사랑방에서 거처하고, 집을 떠나서 까지도 스승을 구하며 벗과 사귀는 등 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있어, 남성이 사회 지향적임에 비하여 여성은 심히 가정 지향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남녀의 교육 내용이 9세까지는 같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자세히 살펴 보면 그 취급에서 이미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 태어난 직후부터 男女의 구별이 있었으니, 남자가 태어나면 평상에 눕히고 구슬로 희롱하며, 활을 문의 왼쪽에 걸어 표시하였지만, 여자일 때에는 卑弱의 표시로 바닥에 눕히며 수건을 문의 오른쪽에 걸어 표시하였고, 남아인 경우에는 생후 3일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활을 쏘게 하여서 자식에게 보이었으나 여자는 천하다고 하여 하지 않았다. 또 아들이 태어 났을 때에는 諸侯 大夫 士의 가정에서는 寬裕, 慈惠, 溫良, 恭敬 등 훌륭한 資質을 지닌 여성으로 하여금 스승을 삼아 본을 보이면서 보호하도록 하였지만 딸에게는 생략하였다.

*21 女子十年不出 姆教婉婉聽從 執麻稟治絲_二織_一 紉組紃 學女事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_二邊豆_一 醢醢禮相助_二奠_一(禮記:內則)

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 났을 때에는 3개월의 마지막 즈음에 이름을 지어 호적에 등록하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딸에게는 없었다는 점등이다. 그러나 10세가 되면 앞에서와 같이 예우적인 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상반했다. 남자는 밖에서 六書와 計數를 배워 家計를 운영하고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활쏘기, 말타기, 예절 등을 배우며 공간적인 규제가 없이 친구를 사귀고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內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어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婦德, 婦言, 婦容, 婦工을 쌓아 남성 지배사회에 적응하도록 훈련했다. 교육이나 취급에서 男女의 이러한 차이는 서양의 그것이 단지 장난감이나 옷의 색깔(김 태련·장 휘숙, 1987: 293) 등 정서적 차이인데 비하여 우리 사회는 다분히 신분적 차이임이 증명된다.

계속하여 여자 15세이후의 교육을 살펴보면 여자의 나이가 열 다섯살이 되거든 비녀를 쬐고 스물살이 되거든 시집 보낼 것이다. 만일 연고가 있어 출가할 수 없으면 스물세 살에 시집보낼 것이다. 시집갈 때 빙례를 갖추면 妻라 칭하고, 빙례를 갖추지 않으면 妾이라고 칭하는 것이다.*22

로 되어 있어 남자가 20세에 冠禮를 치루는 것이 원칙인데 비하여 여자는 15세에 笄禮를 치루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23세에 결혼하며, 그 때 聘禮(남자편에서 구혼하여 親迎의 예를 갖추어 시집 가는 것)를 갖추면 正妻가 되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野合) 妾이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野合의 불이익

이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여성에게만 해당된다. 이리하여 남성은 앞에서와 같이 家庭→學宮→王宮→家庭으로의 순환적인 삶의 과정을 理想的으로 생각하고 실천했지만 여성은 親家에서 媿家로 옮겨 갈 뿐 가정생활의 연속이었으므로 결혼후에는 발달단계에서 연령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V. 要約 및 結言

이상에서 유교를 배경으로한 당시의 문헌을 통하여 발달 단계와 그에 따른 교육법을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조선시대의 교육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대한 마음가짐과 몸가짐, 즉 禮教育이다. 당시의 禮는 유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規準(李相殷: 20~22)으로 이것은 크게 보면 사회 규범 및 사회 제도이고, 또 적게 보면 의식이나 모든 동작을 포함한 일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童蒙 教育에서의 禮는 그 좁은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학문적 성격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유교적 학문은 단지 진리로써 인식한다든지 학술의 탐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의 經典을 읽고 禮와 樂을 공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교과서를 읽어서 얻은 지식을 실제 생활에 옮기는 단계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栗谷도

學文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거나 별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된 자를 아버지답게 하고 아들은 당연히 효성스럽게 하고 신하는……(蒙要訣: 立志章)

하는 것으로 定義하였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올

*22 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年嫁 聘則爲妻 奔則爲妾(禮記: 內則)

바른 방법이 經典에 있다고 믿었으므로, 자손이 비록 어리석거나 科擧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문을 하도록 家訓으로 까지 규정한 경우도 흔히 있다. (柳 点淑, 1986 : 242)

知 行合一을 표방하는 이러한 교육은 그 목표를 儒人(지도자)에 두었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聖人の 언행을 표준으로 삼았다. 초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스승의 모범과 감화를 통한 간접적인 교육으로 시도 했고, 그 다음은 제도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0여년간의 자기 수양과정을 통하여 완성하도록 한 것으로 적어도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하였다.

서양의 초기 교육이 지식 전달이나 암기를 위주로 한 知育中心으로 시작되었다가 오늘날 그 정의가 “개체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로 정립되고 또 J. Dewey의 영향으로 “교육은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옮겨 지고 있으나(羅 炳述, 1985 : 15), 우리 전통 교육은 초기부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곧 생활이었음을 위의 예로서 알 수 있다.

또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서양의 발달 단계 즉 Puritan시대나 Rousseau의 단계들(R. H. Thomas. 1987 : 89, 101)이 출생후부터 청년기까지의 진보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둔 것에 비하여 동양의 발달단계는 태아기를 포함해서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교육 내용과 역할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의 발달 단계를 다르게 정했으며,

셋째, 일생의 교육 목표는 儒人으로서, 이를 위한 준비기가 매우 길고, 따라서 노년기가 늦은 편이며,

넷째, 胎兒期에서부터 致仕期에 이르는 朝鮮時代의 人間發達段階는 유교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정하였지만,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제도·역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구분으로 이는 오늘날의 발달 단계와 일치하는 정도가 크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李樹健, 李朝時代「小學」教育에 대하여, 嶺南大學校 論文集 第二輯, 1968.
- 李珥(李民樹譯), 擊蒙要訣, 서울:乙酉文化史, 1973.
- 丁淳睦, 韓國儒學教育資料集解, 서울:學文社, 1983.
- 曹大家, 女誡, 筆寫本.
- 朱貞一, 兒童發達學, 서울:敎文社, 1988.
- 崔鳳永, 朝鮮時代 선비精神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1.
- 許浚(裴元植譯),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 Bee, H. (1985). The developing child, New York:Harper & Row.
- Thomas, R. M. (1988). Oriental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Peter Lang, 1988.
- Thomas, R. M. (1987). (白雲鶴譯), 兒童發達の諸理論, 서울:敎育科學社.